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서울 상계동 은명내과 김경희 원장

은명내과 김경희원장(81· 정동감리교회 장로). 아직도 상계동 아파트 11단지 상가내에 그의 병원이 있다. 주름진 얼굴과는 달리 소년같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그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환자를 돌보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상계동 슈바이처'로 불리고 있다.

김원장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생명사랑...'은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세민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벌써 15명이 그의 손을 거쳐 새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다음 대상자들이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물론이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에다 경제적 풍족함까지 주셨죠. 받은 것에 대한 책임때문에 늘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죠" 전 재산을 털어 영세민 치료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는 수술 시키는 것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궁극적인 바람은 영혼구원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김원장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김원장은 서울출생으로 6대에 걸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의대 졸업후 그는 본격적으로 의료선교사업을 벌였다. 1972년부터 답십리 청계천 망원동 등 판잣집이 늘어난 골목 골목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치료한 사람만도 2년동안 1천2백명이 넘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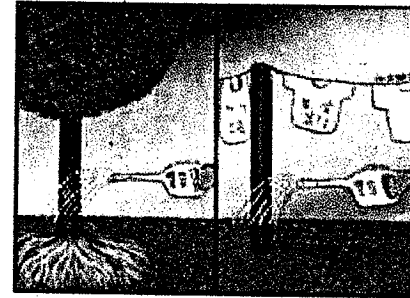
6년여의 유학끝에 자리를 잡은 곳은 84년 상계동이었다. 상계동을 택한 이유도 당시 가장 빈민촌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원장의 선교사업은 해가 바뀔 수록 다양해졌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장수술을 주선해 3년 동안 30명에게 생명의 빛을 안겨 주었다. 중고생을 위해서는 '은명 장학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2천명에게 장학금을 나눠주었다.

"자녀들에게도 늘 이야기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전에 모든 재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96년에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53억원을 선뜻 내놓았다.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로서는 기쁨이다. 지금도 수술 대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생명을 얻게 만들기 위해 상담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돈 때문에 생명이 버려질 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이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 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3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월14일
☎269-8677/021-292-1639.☒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뿌리가 있는 자(그리스도인)는 물이 자신을 자라게 했다고 감사하지만 뿌리가 없는자(종교인)는 물이 자신을 썩게 했다고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이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신문을 받는 중 그 기회를 이용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립바 왕은 깜짝 놀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바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라벨이 붙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침을 뱉듯이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르키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그리 명예스러운 내용으로 불리운 이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신자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부끄러운 별명을 받아 오히려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적 유산을 전해줬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주후 313년에는 로마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1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시 2)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58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12:1-3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복 끼치는 사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92 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일새벽기도: 6:00

<1월 예배 위원>

일 자	헌금위원	주일기 도	수요기도	teatime봉사
7	김교섭.정희자	김 교 섭	한 은 영	김성국.안은주
14	김시욱.장선주	김 영 길	최 윤 호	김교섭.정희자
21	김영길.신경화	김 영 태	최 재 학	김시욱.장선주
28	변지웅.신선숙	노 은 숙	정 희 자	김영길.신경화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신명기 3명. 사무엘하 1명.역대하 3명. 에스라,느헤미야 1명
2.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주일저녁>"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3. 주일 저녁 가정예배문
*올 한 해에는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
서 주일 저녁을 배부되는 예배문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새 성전 방문(오늘)
*시간: 저녁 6:20. cnr Khyber Pass Rd & Burleigh St.
5.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오는 금요일(12일) 저녁 7:30분. 장소:St.Stephens
6. 다음주일 야외예배
*다음주일은 교우 모두 야외에서 예배와 친교 드리겠습니다.
*장소:Shakespear Park *모임시간: 11:30분
*야외예배, 추진위원:제2 약속의 아비(변지웅.김영길.지윤수.김시욱)
*식사: 각 가정에서 한가지 반찬과 밥.
*tea time을 하면서 여성교우들께서는 의논하여주십시오
*낚시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7. 등록하심을 교우들 모두가 기뻐합니다
*박일영,임혜자 집사.은지
27 Simmental Cres. Howick. ☎ 535-5067
8. 교우소식
* 이영권 집사: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Auckland 병원 ward 7A)
9. 성탄축하행사 video tape: 각 가정 1개씩 배부됩니다
10. 1월의 교회력

일자	교 회 행 사
	신년예배.직분임명
7일	제직세미나 & 제직회(10)
	제1약속의 아비 기도회(12)
14일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9)
21일	야외예배(21). 제2 약속의 아비 기도회(26)
28일	